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손 정 연
(서울대학교)

한 경 혜*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 간의 관계적 측면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두 축으로 부부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2,078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위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가 비취업 상태여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불만족스럽지만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남녀 모두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과 심리특성은 만족스럽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4) 부부 사이의 빈번하고 원활한 대화는 베이비부머 남녀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5) 부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남성은 서로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때, 그리고 여성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부부관계의 모습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베이비붐 세대,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관계적 특성, 남녀 차이

본 연구는 2010년과 2012년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한경혜, 서울대학교(ghhan1970@naver.com)

■ 투고일: 2014.7.31 ■ 수정일: 2014.9.9 ■ 게재확정일: 2014.9.10

I. 문제제기

한국 베이비붐 세대¹⁾의 결혼관계를 살펴본 한경혜 등의 연구(2010)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며,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게 되면서 부부로서 함께 생존하는 기간이 점점 증가할 뿐 아니라, 자녀수가 줄어들어 따라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우리기(empty nest stage)가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왔다.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주로 은퇴준비나 끼인 세대담론에 집중되어 왔으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 노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와 실증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련요인에 있어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적 대안으로 보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자녀,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다(윤경자·Schumm, 1997; 이동원, 1988; 전춘애·박성연, 1993).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인 결혼도 내부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1) '세대'는 엄밀히 말하면, 출생 동시 집단이나 동년배 집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건이나 공통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베이비붐 코호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대로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하는데 있어 출산율 급등의 시기와 출생아수의 급등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연구자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955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인 가족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인 1963년까지의 출생 코호트(1차 출산분 시기)로 간주한다.

결혼안정성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안정성이 낮다고 보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한국 중년의 부부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두 축으로 하여,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안정성도 높은 집단, 결혼생활에 불만족하지만 안정성은 높은 집단, 결혼생활에 만족하지만 안정성이 낮은 집단, 그리고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안정성도 낮은 집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베이비부부의 부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력,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부부관계 만족도나 안정성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자원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취업여부나 직업역할에서의 만족도와 같이 가족영역 이외의 사회적 역할 수행 관련 요인이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부 남녀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학력, 소득, 배우자의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보유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 권력구조나 부부관계를 자원보유와 연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조혜선, 2003)이 있어왔다. 그러나 베이비부부 여성은 이전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상승되었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시작한 세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베이비부부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과 부부관계와의 연계가 남성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혹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부관계의 질은 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의 성격과 우울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성격과 결혼의 질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강혜숙·김영희, 2012; 박영화·고재홍, 2005), 통계청(2010)의 발표에 따르면 부부 간의 성격차이가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 중 비교적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격특질인 신경증과, 그에 비해 비교적 가변적인 심리적 특성인 우울증 경향의 두 가지 특성이 결혼안정성 및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우울을 결혼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 결혼생활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이미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부부 간 관계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대화나 동반의출 등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 및 부부 간 갈등해결 양식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이나 대화빈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유 활동 빈도나 대화빈도가 어떠한지, 이들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련되어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관계적 특성의 다른 측면인 갈등해결 방식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과의 관련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의 악화는 갈등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송말희, 1990; 이선미·전귀연, 2005; 조혜선, 2003; Gottman & Krokoff, 1989).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갈등대처 방식 뿐 아니라 상대편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을 탐색한다.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 모두 대화나 양보 등의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지, 부부 중 어느 한쪽만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지, 혹은 부부 모두 말다툼이나 폭력, 회피 등의 부정적 소통을 하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면밀히 검증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이혼에 대한 생각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역시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생활에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으로 보고된다(손정연·한경혜, 2006; Amato & Rogers, 1997).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주도하는 비율이 더 높다(Amato et al., 2007). 특히 중년기 이후의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성이 주도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한경혜 외, 2010). 결혼 및 이혼경험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논의는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이들 요인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과의 연계가 남녀 간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횡단적 연구설계에 기초한 연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관계적 측면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quality)이란 결혼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결혼생활에 있어 갈등이 적고 안정적인 상태일 때 결혼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최선희·전명희, 1999; Lewis & Spanier, 1979).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별개의 개념이며, 결혼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가장 많이 공헌한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다.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비용을 극소화하고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살펴본 연구(Lewis & Spanier, 1979)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라도 대안적 매력이 많을 때는 결혼해체로 이어지기 쉬우며 결혼만족도가 낮더라도 결혼유지에 대한 외적 압력이 높으면 결혼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의 질과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두 축으로 부부관계의 유형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소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결혼의 질 혹은 만족도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부부관계 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선영·김영희, 2005; 이동원, 1998; 최선희·전명희, 1999). 이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모두 높은 경우를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 유형으로 보았고,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모두 낮은 경우를 결혼이 해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유형(risk group)으로 보았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일치하지 않는 두 집단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이러한 유형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에 대해,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현재의 결혼을 유지하거나, 혹은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망, 자녀들의 뒷바라지, 직장생활 등 부부 외적인 관계에서 좌절된 욕구를 보상받음으로써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지만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측면도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반대로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만 이혼을 종종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결혼에서 얻는 만족보다 이혼 후에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이동원, 1998; 최선희·전명희, 1999).

이들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혼에 대한 만족과 안정성 개념을 결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부부관계적 특성을 비교하는 서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중년기의 부부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본 실증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잠재적 결혼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 남녀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가.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자원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이들이 가진 소득, 학력, 배우자의 취업여부,

직업만족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에 주목한다. 결혼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해서 효과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자원이론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 부부간의 권력관계, 나아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즉, 개인이 가진 자원의 양과 종류가 부부간에 형성하는 권력관계, 더 나아가서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 때 자원에는 교육수준,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여부, 직업만족도 등 다양한 성격의 자원이 포함된다. 이 중 특히 소득은 가족 생활환경의 물질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혼 사유에서 수위를 차지할 만큼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원이론이 특별히 주목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자원을 결혼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적인 요인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통제변수로 주로 고려하거나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는 등 부분적으로만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조혜선, 2003).

자원이론에 따르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자원이 여성에 비해 더 많아서, 여성보다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따라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많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유하면 가족 내에서 권력관계가 좀 더 평등해지고, 결혼생활만족도나 결혼안정성에서의 남녀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가족 내 평등한 권력을 가지고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현주·이대균, 2012; McDonald, 1980). 그런가 하면 여성의 취업이나 소득 증가는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조혜선, 2003; Hiedemann et al., 2001; Schoen et al., 2002)도 있다. 사회경제적 자원과 결혼의 질 간의 관련성에 있어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이론적인 설명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조혜선(2003)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는데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조차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 장기적인 커리어를 전망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소수인 점 등,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지어 설명한 바 있다. 즉, 맞벌이를 하는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조차 서비스직, 사무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가정 내 경제활동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원 증가로 인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부부관계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자원이론적인 설명방식보다는 성 역할 이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여성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세대로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일반적인 한국의 여성 취업률(4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통계청, 2009; 한경혜 외, 2010). 이와 같이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와 특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자원 이외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개인적 특성은 심리적 특성으로, 최근 부부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성격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연구들은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으로 주로 성역할 태도나 가치관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이미숙, 2000; 조혜선, 2003; 최규련, 1984), 성격특성과 부부관계를 관련지어 살펴본 국내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강혜숙·김영희, 2012; 박영화·고재홍, 2005).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에 관한 모델은 다양하지만, 서구에서는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을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등으로 나눈 Big Five Model을 주로 사용해왔다(Gattis et al., 2004; Goldberg, 1992). 이 중 신경증(neuroticism)은 특히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혜숙·김영희, 2012; Caughlin et al., 2000; Larson & Holman., 1994).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 반복적인 신경증적 긴장은 우울, 좌절,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어떤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사고나 비효율적인 대처를 유발한다(김경미·김영희, 2009; McCrae & Costa, 1987). Amato와 그의 동료들(2003)에 따르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 전 신경증 성향이 높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안정성에 대한 신경증의 부정적인 효과가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는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같은 가변적 심리 특성 역시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가족 내 부정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아지면서 이는

결국 결혼만족도를 낮추며, 이혼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Cummings et al., 2005; Gabriel et al., 2010; Grames et al., 2008; John & Montgomery, 2009; Kahn et al., 1985). 이처럼 서구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살펴보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우울을 결혼생활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이미숙, 2012). 또한 결혼만족도의 예측요인으로 우울을 살펴보는 소수의 국내연구는 주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초점이 맞추어져(김진경, 2014)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나. 관계적 특성

가족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나 가족문제를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대부분의 가족학자들이 동의한다.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 또한 평상시 부부 간의 상호작용 빈도나 내용,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부부 간의 관계성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하다(송말희, 1990; 이선미·전귀연, 2005; 조혜선, 2003; Gottman & Krokoff, 1989).

지금까지 부부 간의 관계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 빈도 및 방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평상시 원활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영희, 1999; 조혜선, 2003; Litzinger & Gordon, 2005). 반대로 부부 사이에 잦은 비판, 불평 등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부부 간 불화를 초래하며 이혼의 가능성을 높지게 된다(김선영·김영희, 2005; Gottman & Notarius, 2000; Karney & Bradbury, 1995).

한편, 부부가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고현선·지금수, 1995),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이선미·전귀연, 2005; 조혜선, 2003). 흥미로운 것은 상대편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대화나 양보 등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본인의 대처방식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이선미·전귀연, 2005; 조혜선, 2003). 김영희(1999)나 Kurdeck(1995)의 연구에 따르면, 아내가 갈등상황을 회피한다고 지각하는 남편은 본인의 갈등 대처방식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여성의 경우, 본인이 공격적인 대처를 하고 남편이 회피적 대처를 한다고 지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특히 낮았다(이선미·전귀연, 2005). 이처럼 부부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연구가 소수 있지만, 결혼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이선미·전귀연, 2005),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특히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을 결혼의 안정성 측면과 관련지어 살펴본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평소에 대화와 외출 등의 공유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실시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한경혜)」의 1차년도(2010년)와 2차년도(2012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2010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초로 하여 통반리를 표본지점으로 추출, 선정된 표본지점 내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가구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인별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T1) 표본 수는 4,668명, 2차년도(T2) 유지 표본 수는 3,275명이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조사까지 유지된 표본에서, 배우자가 있고 취업 상태인 남녀 베이비부머 2,078명을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가. 사회경제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1차년도의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의 취업여부, 직업만족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소득의 경우, 경제자원이 가구단위로 공유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을 개인소득을 통해 파악할 경우 여성의 현재 경제적 조건이 저평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가구소득 변수는 편포(skewed distribution) 현상을 고려하여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배우자가 취업상태인 경우와 비취업 상태인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업만족도는 현재 하는 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심리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심리적 특성은 신경증(T2)²⁾과 우울(T1)을 통해 파악하였다. 신경증은 성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Big Five Index(BFI: Benet-Martinez, & John, 1998)와 한국종합사회조사(2009)의 성격척도 중 신경증을 측정하는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경우, 지난 1년 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우울했던 적이 있는가를 묻는 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울한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독립변수의 경우 1차년도 변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신경증은 1차년도에 측정을 하지 않았던 변수인데다 성격을 측정하는 변수 특성상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차년도 변수를 대신 사용하였다.

다. 관계적 특성

베이비부머 부부의 관계적 특성은 평상시 부부의 대화빈도와 외출빈도(T1), 부부 갈등시 대처 방식(T1)으로 살펴보았다. 부부의 대화빈도와 외출 빈도는 평소에 부부가 함께 대화나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각각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한 달에 한번 미만(1점)’에서 ‘거의 매일(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자주 대화하고 외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 갈등시 대처 방식은, 본인 및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가 갈등상황에서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는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 혹은 대화나 양보로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조합하여 총 9가지의 유형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대화나 양보로 대처하는 유형, 본인은 대화나 양보로 대처하지만 배우자는 회피하는 유형, 혹은 본인은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쓰고 배우자는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유형 등의 9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라. 부부관계 유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부부관계를 유형화한 선행연구(이동원, 1988; 최선희·전명희, 1999; Lewis & Spanier, 1979)를 참고하여, 부부관계를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한다. 우선 결혼만족도(T2)는 결혼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는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안정성(T2)은 이혼고려빈도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며,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집단을 결혼안정성이 낮은 집단으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없는 집단을 결혼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집단을 결합하여 결혼생활이 만족스럽고 결혼안정성이 높은 유형(만족/안정 집단),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만 결혼안정성은 낮은 유형(만족/불안정 집단),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지만 결혼안정성은 높은 유형(불만족/안정 집단),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고 결혼안정성도 낮은 유형(불만족/불안정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연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종단적 연구설계의 장점은 종속변수의 사전점수(pretest score: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측정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단적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시기에서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함께 방정식의 우변에 포함시키는 ‘시차내생변수를 포함하는 모델(Models with Lagged Endogenous Variables)’의 방식(전혜정, 2004)을 이용하여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관계적 특성, 그리고 부부관계 유형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카이검증 및 t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남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결혼기간, 그리고 1차년도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다항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균 연령은 50.79세이며, 남성의 연령이 여성보다 좀더 높다($t=7.876, p<.001$). 결혼기간은 평균 25년으로, 여성(27년)이 남성(24년)보다 평균 결혼기간이 더 길다($t=-9.232, p<.001$).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할 당시의 평균 연령이 더 낮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고($t=3.318, p<.01$),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절반 이상이 고졸이었으며 대졸 이상은 14.0%에 불과해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76.4%가 배우자가 취업상태로서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배우자가 취업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1.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서의 남녀차이

N=2078명 (남성 1270, 여성 808), 평균(SD) / 빈도(%)

	전체	남성	여성	t / X ²	
평균 연령(47-55세)	50.79(2.56)	51.14(2.54)	50.24(2.51)	7.876***	
결혼기간	25.74(5.18)	24.92(5.22)	27.03(4.83)	-9.232***	
월평균 가구소득	5.94(.47)	5.96(.46)	5.89(.47)	3.318**	
직업만족도	3.24(.72)	3.25(.71)	3.23(.75)	.657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9(23.1)	213(16.8)	266(32.9)	139.220***
	고졸	1042(50.1)	613(48.3)	429(53.1)	
	대졸 이상	557(26.8)	444(35.0)	113(14.0)	
배우자 취업여부	비취업	490(23.6)	453(35.7)	37(4.6)	264.885***
	취업	1588(76.4)	817(64.3)	771(95.4)	

p<.01 *p<.001

2. 베이비붐 세대의 심리적·관계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심리적인 특성에서의 남녀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안정적인 성격특성인 신경증에서는 남녀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우울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여성의 경우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13.7%)이 남성(8.2%)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2. 심리적 특성에서의 남녀차이

N=2078명 (남성 1270, 여성 808), 평균(SD) / 빈도(%)

		전체	남성	여성	t / X ²
신경증		4.68(1.05)	4.68(1.05)	4.68(1.04)	.063
우울여부	우울하지 않음	1863(89.7)	1166(91.8)	697(86.3)	16.390***
	우울함	215(10.3)	104(8.2)	111(13.7)	

***p<.001

<표 3>은 부부가 평상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고 외출을 하는지, 그리고 갈등상황에서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부부의 대화빈도에서는 남녀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외출빈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배우자와 외출하는 빈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t=2.676, p<.01).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갈등상황을 회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나타나 갈등 대처 방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부 모두 대화나 양보로 갈등을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성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6.3%)이 남성(10.4%)보다 더 낮다.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갈등 대처방식이 다르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은 대화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배우자는 회피 혹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정적인 대처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15.6%)이 남성(10.2%)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표 3. 관계적 특성에서의 남녀차이

N=2078명 (남성 1270, 여성 808), 평균(SD) / 빈도(%)

		전체	남성	여성	t / X ²
평상시 상호 작용	부부대화빈도	4.50(1.59)	4.53(1.55)	4.46(1.65)	.916
	부부외출빈도	2.71(1.37)	2.77(1.36)	2.60(1.39)	2.676**
갈등시 대처 방법	부부 모두 회피	973(47.0)	573(45.3)	400(49.6)	40.497***
	본인: 회피 배우자: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	161(7.8)	91(7.2)	70(8.7)	

	전체	남성	여성	t / X ²
본인: 회피 배우자: 대화나 양보	211(10.2)	150(11.9)	61(7.6)	
본인: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 배우자: 회피	131(6.3)	84(6.6)	47(5.8)	
부부 모두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	111(5.4)	72(5.7)	39(4.8)	
본인: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 배우자: 대화나 양보	46(2.2)	34(2.7)	12(1.5)	
본인: 대화나 양보 배우자: 회피	212(10.2)	112(8.9)	100(12.4)	
본인: 대화나 양보 배우자: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	43(2.1)	17(1.3)	26(3.2)	
부부 모두 대화나 양보	183(8.8)	132(10.4)	51(6.3)	

p<.01 *p<.001

3. 베이비붐 세대의 부부관계 유형

베이비붐 세대의 부부관계 유형별 남녀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는 베이비부머, 즉 만족/안정 집단에 속하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여성의 응답 비율(36.9%)이 남성(47.9%)보다 좀더 낮다. 이와 반대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하여 해체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부부관계 유형(불만족/불안정 집단)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며, 여성의 응답 비율(29.0%)이 남성(22.3%)보다 좀더 높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3분의 1 가량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안정성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 중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지만 부부관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부(불만족/안정 집단)의 비율(21.4%)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부부(만족/불안정 집단)의 비율(10.1%)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여성(24.1%)이 남성(19.7%)보다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혼을 고려하지는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부부관계 유형별 남녀차이

N=2078명, 빈도(%)

	전체	남성	여성	X ²
만족/안정	906(43.6)	608(47.9)	298(36.9)	27.108***
만족/불안정	210(10.1)	129(10.2)	81(10.0)	
불만족/안정	445(21.4)	250(19.7)	195(24.1)	
불만족/불안정	517(24.9)	283(22.3)	234(29.0)	
합계	2078(100)	1270(100)	808(100)	

***p<.001

4. 베이비부머 남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기제가 남녀 간에 동일한지 혹은 상이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짓분석의 기본모델을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부부관계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남성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의 효과를 살펴본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을 가진 남성은,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83배 더 높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일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96배(역승산비: 1/0.51) 더 높다.

다음으로 남성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향이 강한 남성일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69배,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3배 더 높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우울함을 느끼는 남성은 만족/안정 집단보다는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93배,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83배, 그리고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6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관계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소에

부부 간의 대화가 적을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6배(역승산비: 1/0.86) 더 높고,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9배(역승산비: 1/0.84) 더 높다. 또한 평소에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4배(역승산비: 1/0.8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시 어떠한 대처방법을 쓰는가와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대화나 양보를 하기보다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남성은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18배 더 높다.

<표 5>에서 부부관계 유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 통제변수는 연령, 1차년도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다. 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3배(역승산비: 1/0.88) 더 높다. 1차년도에 결혼 생활에 불만족한 남성은 2차년도 현재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66배(역승산비: 1/0.60) 더 높고,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77배(역승산비: 1/0.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에 결혼안정성이 낮은 남성은 2차년도 현재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43배(역승산비: 1/0.41) 더 높고,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72배(역승산비: 1/0.58) 더 높다.

표 5. 남성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련성

변수	불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불만족/안정 vs. 만족/안정		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통제변수						
연령	-.05(.03)	.94	.01(.03)	1.01	-.11(.04)*	.88
결혼기간	.06(.10)	1.07	.06(.10)	1.06	.08(.13)	1.09
T1결혼만족도(만족=1)	-.51(.18)**	.60	-1.01(.18)***	.36	-.20(.23)	.81
T1결혼안정성(안정=1)	-.88(.18)***	.41	.10(.19)	1.11	-.53(.23)*	.58
사회경제적 특성						
학력 (준거: 대졸 이상)						
중졸 이하	.14(.27)	1.15	.60(.25)*	1.83	.13(.35)	1.14
고졸	.30(.18)	1.35	.13(.20)	1.14	.25(.23)	1.12

변수	불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불만족/안정 vs. 만족/안정		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소득	-.23(.18)	.78	-.67(.19)**	.51	-.02(.23)	.97
배우자취업여부(취업=1)	-.26(.16)	.76	-.07(.17)	.92	-.26(.20)	.76
직업만족도	-.15(.12)	.85	.14(.12)	1.15	-.03(.15)	.96
심리적 특성						
신경증	.52(.07)***	1.69	.13(.08)	1.14	.20(.09)*	1.23
우울여부(우울함=1)	.66(.30)*	1.93	1.04(.29)**	2.83	.97(.35)**	2.65
관계적 특성						
부부대화빈도	-.14(.05)*	.86	.00(.05)	1.00	-.17(.07)*	.84
부부외출빈도	.01(.06)	1.01	-.13(.06)*	.87	.07(.08)	1.08
갈등 대처방식 (준거 부부 모두 대하나 양보) 부부 모두 말다툼, 폭력	1.15(.42)**	3.18	ns	-	ns	-
-2 Log Likelihood	3094.36					
chi-square	304.76***					

주: 1) *p<.05 **p<.01 ***p<.001

2) 갈등 대처방식 변수의 경우, 총 9가지 유형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6>은 여성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에 비해 배우자가 은퇴 등으로 인해 비취업 상태인 여성은, 만족/안정 집단보다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57배(역승산비: 1/0.28) 더 높다. 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을 가진 여성은,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9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향

이 강한 여성일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5배 더 높다. 또한 평소에 우울함을 느끼는 여성은 만족/안정 집단보다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1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관계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소에 부부간의 대화가 적을수록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3배(역승산비: 1/0.81) 더 높다. 반면 부부가 함께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는가와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남성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부갈등시 어떠한 대처방법을 쓰는가와 부부관계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대화나 양보를 하기보다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에,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00배 더 높다. 또한 본인은 회피적 대처, 배우자는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경우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69배 더 높고, 본인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배우자가 회피하는 경우에는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부부관계 유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 통제변수는 1차년도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다. 1차년도에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웠던 여성은 2차년도 현재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85배(역승산비: 1/0.54) 더 높고, 불만족/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81배(역승산비: 1/0.5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에 결혼안정성이 낮은 여성은 2차년도 현재 만족/안정 집단에 비해 불만족/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08배(역승산비: 1/0.48) 더 높다.

표 6. 여성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련성

변수	불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불만족/안정 vs. 만족/안정		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통제변수						
연령	.00(.04)	1.00	.00(.04)	1.00	-.04(.06)	.95
결혼기간	-.06(.12)	.93	-.05(.13)	.95	-.25(.18)	.77
T1결혼만족도(만족=1)	-.60(.22)**	.54	-.58(.22)**	.55	.18(.29)	1.20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변수	불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불만족/안정 vs. 만족/안정		만족/불안정 vs. 만족/안정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T1결혼안정성(안정=1)	-.72(.20)***	.48	.22(.21)	1.24	-.20(.28)	.81
사회경제적 특성						
학력 (준거: 대졸 이상)						
중졸 이하	.35(.34)	1.42	.40(.35)	1.50	1.07(.49)*	2.91
고졸	.00(.29)	1.00	.08(.31)	1.08	.61(.41)	1.84
소득	-.33(.22)	.71	-.17(.23)	.84	.49(.31)	1.64
배우자취업여부(취업=1)	-.73(.56)	.48	-1.25(.56)*	.28	-1.30(.71)	.27
직업만족도	-.00(.14)	.99	-.23(.14)	.79	.27(.20)	1.31
심리적 특성						
신경증	.22(.09)*	1.25	.08(.09)	1.08	.13(.12)	1.14
우울여부(우울함=1)	.74(.28)**	2.11	.05(.33)	1.05	-.19(.49)	.82
관계적 특성						
부부대화빈도	-.09(.06)	.91	.05(.06)	1.05	-.21(.09)*	.81
부부외출빈도	-.01(.07)	.98	-.12(.07)	.88	-.05(.11)	.94
갈등 대처방식 (준거: 부부 모두 대화나 양보)						
부부 모두 회피	1.09(.52)*	3.00	ns	-	ns	-
회피 & 말다툼, 폭력	1.30(.61)*	3.69	ns	-	ns	-
대화나 양보 & 회피	1.17(.57)*	3.23	ns	-	ns	-
-2 Log Likelihood	1891.70					
chi-square	170.15***					

주: 1) *p<.05 **p<.01 ***p<.001

2) 갈등 대처방식 변수의 경우, 총 9가지 유형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3) 갈등 대처방식 변수 중 A&B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A는 본인의 대처방식이며 B는 배우자의 대처방식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관계적 측면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하여 해체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부부관계 유형의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점, 그리고 결혼생활은 불만족스럽지만 부부관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부부의 비율 또한 21.4%로 상당히 높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구조적 안정성과는 별개로 잠재적 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섯 명 중에 한명 꼴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사회가 서구에 비해 이혼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제약 등 이혼에 따르는 비용이 큰 편이어서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적 대안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이비붐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위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아내보다는 남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가부장적 가족특성이 아직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결혼에서의 혜택을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조혜선, 2003). 특히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취업여성은 두 역할 간 균형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한경혜·손정연, 2012),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집단 역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남성 이혼자에 비해 높다는 점(노영주, 2001; 손정연·한경혜, 2006), 그리고 이혼 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이혼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라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즉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이혼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은퇴 등으로 인해 비취업 상태여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은 현재 안정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후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은 가정 내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남편이 은퇴한 상황에서 ‘일하는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 부양자 지위에 위협이 되거나 생활시간 등 일상의 조절과 관련된 갈등으로 부부관계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조혜선, 2003; 한경혜, 2008; Moen et al., 2001).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년기 부부관계가 노년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은퇴 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의 부부관계에 좀더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력이 낮은 여성은 고학력의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만 다소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와 결혼의 질이 자원의 양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셋째, 남녀 모두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과 심리특성은 만족스럽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녀 모두 신경증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평소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에도 불만족하고 이혼을 종종 고려하는 불안정한 결혼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서적 안정성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결혼생활의 질이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신경증적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려고 하고, 충동성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미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희, 1999; 김경미 · 김영희, 2009; Caughlin et al., 2000; Dykstra, 1996). 우울과 부부관계의 관련성에서도, 평소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부갈등과 이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Cumming et al., 2005), 우울감은 결혼생활의 행복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울감이 개인적인 특성인지 결혼생활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우울감 유무가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심리특성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부부 사이의 빈번하고 원활한 대화는 베이비부머 남녀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성의 경우 평소에 부부 간의 대화가 적으면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은 평소에 남편과의 대화가 적으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지는 않지만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만족스런 부부관계의 유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영희, 1999; 조혜선, 2003; Litzinger & Gordon, 2005)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부부가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는가와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빈도가 낮으면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결혼생활에는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부가 일상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재정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남성의 경우, 직업 영역에서의 만족이 부부관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여성보다 더 두드러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섯째,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성은 갈등상황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때 결혼만족도가 낮고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김영희·정선영, 2007; Christensen & Heavey, 1990), 부부 사이의 갈등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때 남성이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상호작용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내에 대해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기대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어서(노치영·최혜경, 1996) 아내가 공격적인 대처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혹은 본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갈등 상황에 회피적 대처를 하는 경우에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이혼을 종종 고려하는 등 불안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

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서 더 민감하고 반응적인 경향이 있는데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김영희·정선영, 2007; Thomson & Walker, 1991). 하지만 배우자가 갈등상황을 회피해버리거나 혹은 배우자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 역시 불편한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경우, 이는 서로 간의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성에게는 갈등상황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부관계의 복합성에 주목하여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유형화하고, 부부관계 결정요인에 있어서의 남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해체의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취약 집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자녀들이 이혼의 가장 큰 억제요인인 것으로 지적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들이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는 중년 후반부가 되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의 가족해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은퇴와 자녀의 독립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편성해 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노후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노년기 삶에 대한 설계를 함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적 측면,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특성은 관계성에 따라 부여되는 상대적 의미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조혜선, 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개별특성을 상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부를 분석단위로 한 후속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관계적 특성 변수들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정연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년기 건강문제, 베이비부머의 은퇴, 가족관계 등이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 종단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에 참여하고 있다. (E-mail: hema23@hanmail.net)

한경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 베이비부머의 가족과 삶, 세대관계, 중·노년기 건강, 일·가족 상호성 및 은퇴와 같은 생애전이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 종단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ghhan1970@naver.com)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pp.2861-2880.
-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pp.71-83.
- 김경미, 김영희(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pp.327-352.
- 김선영, 김영희(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pp.41-57.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pp.77-95.
- 김영희,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pp.65-82.
- 김진경(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1), pp.1-17.
- 김태현(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pp.4-11.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pp.43-63.
- 노치영, 최혜경(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pp.237-248.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pp.65-83.
- 손정연, 한경혜(2006). 결혼의 질, 이혼장애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83-102.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pp.31-47.
- 윤경자, Schumm, W. R.(1997).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두 이론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4), pp.31-46.

-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pp.145-161.
- 이미숙(2012). 노인 인구의 결혼관계와 우울증세: 결혼지위와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6(4), pp.176-204.
- 이선미, 전귀연(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7), pp.93-107.
- 임현주, 이대균(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pp.451-470.
-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pp.81-96.
- 전혜정(2004). 미국 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종단적 자료 분석. 한국노년학, 24(1), pp.89-105.
- 전혜정, 조규영(2011). 중·고령자의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 경험, 사회적 유대, 우울.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37, pp.387-411.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 사회학, 37(1), pp.91-115.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pp.91-102.
- 최선희, 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38, pp.284-308.
- 통계청(2013). 2012년 인구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pp.86-118.
- 한경혜, 손정연(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pp.291-330.
-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0).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 Amato, P. R., Booth, A., Johnson, D. R., Rogers, S. J. (2007). *Alone together: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mato, P. R., Johnson, D. R., Booth, A., Rogers, S. J. (2003). Continuity and change in marital quality between 1980 and 200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pp.1-22.
- Amato, P. R.,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pp.612-624.
- Benet-Martinez, V., John, O. P. (1998). Los cinco grandes across cultures and ethnic groups: Multitrait multimethod analyses of the Big Five in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pp.729-750.
- Caughlin, J. P., Huston, T. L., Houts, R. M.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pp.326-336.
- Christensen, A.,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pp.73-81.
- Cummings, E. M., Keller, P. S., Davies, P. T. (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pp.479-489.
- Dykstra, L. H. (1996). *Marriage: Owner's manual*. Kroshka Books.
- Gattis, K. S., Berns, S., Simpson, L. E., Christensen, A. (2004). Birds of a feather or strange birds? Ties among personality dimensions, similarity,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pp.564-574.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kers for the big five-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pp.26-42.
- Gottman, J. M.,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pp.47-52.

- Gottman, J. M., Notarius, C. L.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927-947.
- Gabriel, B., Beach, S. R. H., Bodenmann, G. (2010).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in couples: Investigating gender differences. *Behavior Therapy*, 41, pp.306-316.
- Gramnes, H. A., Miller, R. B., Robinson, W. D., Higgins, D. J., Hinton, W. J. (2008). A test of contextual theory :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 ethics, marital satisfaction, health problems, and depress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0, pp.183-198.
- Hiedemann, B., Suhomilina, O., O'Rand, A. (1998).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tus and empty nest in middle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pp.219-231.
- Kahn, J., Coyne, J. C., Margolin, G. (1985). Depression and marital disagreement: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spai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pp.447-461.
- Karney, B. R., Bradbury, T. N. (1995). Longitudinal research on marriage. *Psychological Bulletin*, 118, pp.3-34.
- Kurdec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153-164.
- Larson, J. H.,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pp.228-237.
- Lewis, R. A., Spainer, E.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R., Hill, R., Nye, F. I., Reiss, I. 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pp.268-294. New York: Free Press.
- Litzinger, S., Gordon, K. C. (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1, pp.409-424.
- McCrae, R. R., Costa, P. C., J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across

-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pp.81-90.
- McDonald, G. W. (1980). Family Power: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November), pp.841-854.
- Moen, P., Kim, J. E., Hofmeister, H. (2001). Couple's work/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marital qual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1), pp.55-71.
- Schoen, R., Astone, N. M., Rothert, K., Standish, N. J., Kim, Y. J. (2002). Women's employment,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Social Forces*, 81(2), pp.643-662.
- St John, P. D., Montgomery, P. R. (2009). Marital status, partner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men and women. *La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54(7), pp.487-492.
- Thomson, L., Walker, A. J. (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In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pp.76-102), Putnam.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Korean Baby Boomer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Son, Jeong-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Gyoung-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four types of marriage based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each type of marriage. Four types of marriage are characterized as satisfied-stable, dissatisfied-stable, satisfied-unstable, and dissatisfied-unstable. We surveyed 2,078 respondents born between 1955 and 1963.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omen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relationships and more likely to have given a serious thought about divorce than men. Second,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Third, stable psychological state is an important factor for a satisfied and stable marriage for both men and women. Fourth, frequent communic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both men and women. Lastly, negative communication styles such as arguing or violent behavior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en. Whereas for wome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spouse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and each type of marriage display some gender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Keywords: Korean Baby Boomer,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Gender Difference